

2025학년도
유아교육과 마중물 사업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교육봉사활동 수기>

최우수 - 이○수

최우수 - 송○민

2025년 유아교육과 마중물사업 교육봉사활동 수기

소속지역대학	서울지역대학	번호	입력금지
실습기간	2025.2.3.~2025.2.14		
학번			
이름			
연락처			

< 교육봉사가 선사한 특별한 선물 >

1. 마음을 움직인 단설유치원, 눈 밝으며 시작된 첫 걸음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가던 중, 실습 전 교육봉사부터 잘해보고자 마음먹고, 엄마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우리 동네의 단설유치원에 용기를 내어 전화 문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거절당할까 염려했지만, 원감님께서서는 흔쾌히 저의 교육봉사 활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육봉사 기관을 찾기까지의 막막함이 컸던 터라, 그 수락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육봉사 첫날,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인 유치원 마당에서 등원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손을 잡고 눈 위를 걸어 발자국을 남기던 그 순간은, 제 봉사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낯설어하던 몇몇 아이들도 있었지만, 다음 날부터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뽀뽀 열어붙였던 저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설렘과 긴장감 속에 만 5세 '햇살반' 아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기에,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깥놀이터에서 단순한 나뭇가지 하나로도 친구들과 협의하며 놀이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놀이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 교육봉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2. 샘물사랑반에서 만난 특별한 아이들, 전담 교사의 역할을 배우다

샘물사랑반 아이들 속에는 저의 시선을 유독 잡아끄는 두 명의 특별한 유아가 있었습니다. 활동 중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한 명과, 감정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교실 안을 큰소리로 울며 돌아다니는 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개별적인 도움이 절실한 아동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는 동안, 저와 또 다른 교육봉사 선생님은 이 두 아이를 각각 한 명씩 전담하여 개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 역시 낯선 저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날부터 등원 시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시작으로, 가방 정리를 도와주고, 간식 먹기를 지원하는 등 아주 작은 일상 활동부터 함께하며 친밀감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창한 교육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고,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반응하며 꾸준히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점차 저에게 짧은 단어로라도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놀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소리를 내며 역할놀이를 시작하자 아이는 놀이에 집중하며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에게 세상 어떤 보상보다 값진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한 아이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교육봉사 학생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돕는 ‘전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주었습니다.

3. 교육봉사생으로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 지식에서 공감으로

교육봉사생으로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특별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감정 폭발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아이들이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공격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할 때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말았던 아이가 감정의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울고 교실을 돌아다닐 때, 주변의 다른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과 선생님들께 누를 끼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곧 저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관한 책, 그리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 공부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며,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공감 능력’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보이는 행동(상동 행동, 특정 감각 추구)이 단순한 ‘문제 행동’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식’임을 이해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연민과 애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해결 과정은 ‘놀이’와 ‘준비’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놀이+블럭놀이와 만들기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맞춤형 활동 자료를 만들었고, 시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 간단한 그림 카드를 만들어 일과 전환 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즉각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준비된 자세와 아이의 시선에 맞춘 놀이 지원을 통해, 저는 ‘아이를 이해하는 조력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특별한 경험과 상호작용이 만들어 준 나의 진로 비전

짧은 교육봉사 기간이었지만, 저는 단순히 학점을 채우는 봉사를 넘어 ‘성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놀이에 소리 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보여주었던 환한 웃음, 등원 시 제 손을 먼저 잡으려 다가오는 순수한 모습, 그리고 저에게만 대답해주던 속삭임들은 저의 삶의 방향을 뚜렷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 특수아동에 그저 관심만 있을 뿐이었는데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순수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고,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개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귀한 만남이 저에게 특수교육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저는 망설임 없이 특수아동을 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관련 직종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봉사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5. 봉사 경험이 이끈 새로운 도전, 특수아동 교사로서의 꿈

저는 그저 막연히 특수아동에 관심이 있는 정도였는데, 교육봉사를 통해 특별한 아이들을 만난 후 특수교육 관련 직종에 도전하기 위해 비로소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한 걸음에 감사하고, 엉뚱한 행동에 순간순간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고 남들이 당연하게 해내는 일들을 함께 배워나가야 하는 초보 교사지만, 저는 이 작은 일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찾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봉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아이들이 많으며, 그들이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샘물사랑반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사회의 당당하고 귀여운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수한 마음과 해맑은 웃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6. 미래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1) 교육봉사 후 느낀 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기다림과 공감'입니다. 교육봉사 과정 전체를 통틀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교수법이 아니라,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특수아동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상호작용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봉사 기관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저는 '봉사생'이 아닌 '아이들의 놀이 친구'이자 '미래 교사'로서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며 저 역시 유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2) 교육봉사생으로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 과정

어려웠던 점	해결 과정
초기 낮가림 및 소극성	등원 맞이 시 적극적인 눈 맞춤과 신체 접촉(손잡기), 작은 일상 지원(가방 정리, 간식 지원)을 통해 매일 반복적인 친밀감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특수아동의 돌발행동 대처	행동의 원인을 '소통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자폐스펙트럼장애 관련 전문서적과 자료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지식 습득 후 '공감'으로 대처했습니다.
놀이 지원의 어려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위해 소리, 역할놀이, 맞춤형 활동 자료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였고, 아이의 흥미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려 노력했습니다.

3) 교육봉사를 할 후배들에게 전달할 이야기

• 기관 선정 시 '다양성'을 고려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일반 기관뿐 아니라 장애 통합반이나 다양한 배경의 아동을 만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 보세요. 짧은 봉사라도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야와 전문성을 보다 더 넓혀줄 것입니다.

• 먼저 '놀이 친구'가 되세요: 아이들에게 “나는 교육봉사 학생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함께 놀이하러 선생님이야”라는 태도로 다가가세요. 약간의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아이들의 놀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며 '아이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교육적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 관찰 기록을 습관화하세요: 특히 특정 아동에 대한 행동 관찰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록하세요. 이 작은 기록들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적 가설을 세우는 핵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짧지만 소중한 봉사 활동이 저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준 만큼, 교육봉사 경험이 후배님들의 교육자 여정에도 분명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7. 아이들과 함께 만든 배움의 순간들



▶자동차와 함께하는 창의 블럭 놀이



▶색종이, 재활용 플라스틱 통을 활용한 입체 미술 활동 - 문어 만들기



▶우주 이야기를 활용한 상상 표현 미술 활동



▶달 동화를 듣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달' 활동

2025년 유아교육과 마중물사업 교육봉사활동 수기

소속지역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지역대학	번호	입력금지
실습기간	2025-09-22 ~ 2025-10-01		
학번			
이름			
연락처			
내용			
<p>유아교육과에서 공부하며 교육봉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유치원이 단순히 아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처음 들어선 낯선 유치원의 공기는 내 생각보다도 훨씬 안정적이었고,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며 교육환경이 아이들의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교사의 역할이 '지도'와 '통제'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나보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장 크게 바뀐 생각은 교사의 권위는 지시와 규칙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한 아이가 실수로 색칠을 망쳐 속상해하던 날, 담당 교사는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이 색도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며 아이의 마음을 먼저 다독였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금세 안정을 찾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유아의 자발성은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수용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p> <p>교육봉사 동안 나는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다. 친구에게 양보하려다 망설이는 모습, 혼자서는 어려운 활동을 도전하려는 모습, 그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 모두가 성장의 기록이었다. 그 곁에서 나는 '기다리는 어른'의 역할을 배웠다. 재촉하지 않고, 대신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태도였다. 이 경험들은 내가 유아교육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보다 마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이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나를 신뢰하게 되는 것. 그 신뢰가 바로 진정한 교사의 권위라는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앞으로 나는 유아들의 개성과 감정을 존중하며, 아이들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말처럼, 내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길을 책임감 있게 걸어가고자 한다.</p>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봉사를 앞둔 학우들에게 몇 가지 작은 팁을 전하고 싶다.

1. 관찰이 먼저, 행동은 그 다음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파악하면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보인다. 조급해 하지 않고 아이의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사가 즐거워야 아이도 즐겁다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아이는 금방 알아차린다. 완벽하려고 하기보다, '어른이지만 함께 노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훨씬 편해진다.

3. 작은 대화가 큰 신뢰를 만든다

"오늘 기분 어때?", "이 색을 고른 이유가 있니?" 같은 짧은 질문도 아이에게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4. 실수해도 괜찮다. 교사도 연습 중이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태도다. 실수는 교사에게도 배움의 과정이니 너무 부담 갖지 않길 바란다.

5. 교육봉사는 '돕는다'가 아니라 '함께 배운다'는 태도로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 속에서 교사가 얻게 되는 배움은 교실 밖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